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귀태. 안셀모 916-847-820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이사야 2:1-5	제2독서	로마서 10:9-18	복음	마태오 28:16-20
--------	------	-----------	------	-------------	----	--------------

◎말씀 < 기쁜 소식 >

오늘은 연중 29주일이자 전교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마태오28, 18-20)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전교해야 하는 이유의 요약입니다. 하느님을 알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걸림을 충족하기 위해 명예, 물질, 쾌락, 탐욕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끝없는 갈증과 갈망 속으로 빠져듭니다. 사람이 혼자서 세상에 있는 것을 모두 다 소유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무한한 갈망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직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의 추구가 좌절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독서에서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이사2,3)

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느님이 가르쳐주시는 길은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한한 갈망과 갈증의 정확한 방향은 하느님을 향한 것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전교는 이 선포에서 시작합니다. 하느님만이 우리 자신안에 행복을 주는 모든 것을 완전히 소유하고 계시고, 스스로 한없는 만족을 누리시는 하느님만이 사람의 이 무한한 갈망과 갈증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인간의 갈증과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느님이심을 알려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전교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복음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전파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2독서에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10,9)라고 말합니다.

전교는 참 행복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나!”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받아들이신 신앙인이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세상에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0월20일(화)	연중 제29주간 화요일		교무금 주일헌금	\$ 1,510.00 \$ 610.00
10월21일(수)	연중 제29주간 수요일		미사예물 성소후원	\$ 100.00 \$ 115.00
10월22일(목)	연중 제29주간 목요일		사회복지 성물방	\$ 25.00 \$ 0.00
10월23일(금)	연중 제29주간 금요일		기타수입	\$ 150.00
10월24일(토)	연중 제29주간 토요일		합 계	\$ 2,510.00
10월25일(일)	연중 제30주일	오전 10시	미사참례자	학생: 0명 성인: 61명

교무금 봉헌자 김길록(10-12월)진엘리사(9-12월)김진태(8-12월)김평옥(9-10월)김용문.윤재경.김운태.안강순 허형.김규대.김영숙(10월)

◎신앙생활(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양심

하느님의 법은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理性)으로 자연스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해야만 하는 일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하느님의 법은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지요. 이렇게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하느님의 법을 ‘자연법’이라고 하는데, 자연법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양심을 통해 자각하게 됩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와서 하느님께로 돌아가도록 창조된 인간은 천성적으로 하느님을 향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본성상 내면에서 울려 나오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데, 이 신비로운 하느님의 목소리가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conscience)이라는 말은 그 어원상 ‘함께 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느님과 함께 안다는 것입니다.

사목 헌장 16항에 따르면 인간은 양심 속 깊은 데서 법을 발견합니다. 이 법의 소리는 언제나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는 말씀을 마음의 귀에 들려줍니다. 이렇게 하느님이 새겨 주신 법을 인간은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충실함으로써 우리 인간은 본연의 존엄성을 지켜갈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장차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양심의 본질적인 역할은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과 악을 가릴 때, 처음에는 삶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다가 나중에는 교육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자연적인 삶의 차원에서는 결국 남을 위하여,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속한 단체나 국가, 인류를 위해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선(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육신 생활을 영성 생활로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느냐 아니면 이기적인 육신 생활을 위하여 삶의 모든 것을 바치느냐에 따라 선악을 가리는 것을 최후의 판단 원리로 삼습니다.

양심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의식(意識)이자, 한 인간이 오직 하느님 한 분과 머무는 지성소(至聖所)입니다. 양심은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완성되는 하느님의 법을 놀라운 방법으로 밝혀 줍니다. 양심에 충실함으로써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결합되어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를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윤리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태옥.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엠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김초지.마리아/이규청.제노비아/엠모니카 배미성.오틸리아/박모란.글라라/고공자.벨라뎃다 신용경.그레고리오/이상일.마리아/곽화근.요한
- ◎기도 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생	곽화근.요한 건강회복	곽유경.데레사	생	김진희 마음의 평화	김효주아네스
생	박성진.율리아 건강회복	박프란치스코			

간
장
종
지

◎은총은◎

기도는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사랑은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감사는 모든 주위를 편케하여
따뜻한 정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은총

마종기 노렌조.시인,의사

(광고)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좋은사람들, 좋은아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p> <p>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 cell</p>	<p>에어컨 수리</p> <p>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p> <p>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p> <p>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p>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최병엽공인회계사</p> <p>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의사</p> <p>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p>동부뉴욕 4박5일 관광 엘로스톤 유럽 관광전문</p> <p>게스관광</p> <p>(480)244-0033 카카오톡:guesstour www.guesstour.com</p>	<p>Suzie Hair World</p> <p>2901 Mather Field Rd, #A, Rancho Cordova CA 95670 윤수산나 (916)368-8000</p>
<p>성당에 제출할 CHECK 발행하실 때</p> <p>Payee to: St.J.H.C</p>		<p>♡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p>	

●공동체 소식(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1. 실내미사 재개안내(10월4일)
주일미사;일요일 오전10시
평일미사;당분간 없습니다.
모임 및 회합.행사 중지는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장합니다.
미사참가 가능인원:정원의25%(약60명)
미사참례자는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2. 본당소독봉사(매주일 10시미사전후)
미사 참례자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미사전후 자발적인 소독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바랍니다.
3. 교무금과 주일헌금 봉헌
교무금과 주일헌금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교회 유지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신자들의 의무사항입니다.
교무금과 주일헌금은 미사중에 봉헌하시거나 사무실에 봉헌해주시고, 미사참석에 어려우신 분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CA95826
Check 발행시: **ST. J.H.C.**
4. 주님!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권춘희자매님(권영일.프란치스코 모친)께서 지난주에 97세로 LA에서 선종하셨습니다.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5. 신자 주소록
현재 게시판에 최종버전(10.17자)게시중입니다
최종확인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인쇄를 원하지 않는 정보(예,주소)는 구역장 또는 사무실에 삭제요청 바랍니다.

6. 교구2차헌금
일시: 10월18일(일)교중미사
목적:World Mission Sunday
7. St. Mary's묘소 한국섹션 근무자 모집
주요업무:한국세션 홍보 및판촉(한국.영어가능
사무실제공하며 주2회 2시간이상근무
문의:고원석 연령회장(916-813-4440)
8. 마스크 필요하신분은 연락해주세요(사무실)
(어린이용 KN95 마스크)
9. 감사합니다
광고비(2021년도):서은미부동산(\$150)

◆ 미사 참례시 안내사항

- 미사 전후에 성당을 소독합니다.
(미사 장소와 친교실, 화장실 등)
- 미사 참례자는 성당 입구에서 손 세정제를 사용한 뒤 성전에 들어갑니다.
- 미사 참례자는 다른 사람과의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합니다. 다만, 가족은 예외입니다.
- 모든 신자는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성체를 모실 때만 마스크를 벗습니다.
- 미사중 신자가 함께하는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응답부분은 해설자가 대신하고, 성가는 필요에 따라 독창이나 오르간 반주로 대신합니다.
- 성체분배 전, 주례 사제는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만 외치고 성체분배 시에는 사제와 성체분배자 모두 침묵 중에 성체를 분배하고, 양형 영성체와 입으로 하는 영성체는 금지합니다.
- 미사 중(평화의 인사등) 뿐만 아니라, 미사가 끝난 후에도 악수 등 다른 사람과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p>화답송</p>  <p>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p>				
<p>전례봉사</p>	<p>연중제29주일(10월18일)</p>	<p>연중제30주일(10월25일)</p>	<p>모든성인대축일(11월1일)</p>	<p>평신도주일(11월8일)</p>
<p>복사</p>	<p>최진호.다니엘</p>	<p>김규철.레오</p>	<p>송돈희.요셉</p>	<p>김규철.레오</p>
<p>헌금위원</p>	<p>레지오 단원</p>	<p>레지오단원</p>	<p>레지오단원</p>	<p>레지오단원</p>